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수영연맹 고문 이승철 원로
이승철 원로 인터뷰

노력의 땀방울
연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육상팀 인터뷰

구·군체육회를 가다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체육의 힘을 전하다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체육 CONTENTS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수영연맹 고문 이승철 원로
한평생 수영과 함께한 부산수영계의 산증인!

노력의 땀방울 연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통과 단합으로 끝까지 달린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진구체육회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체육의 힘을 전하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오션초등학교 피구스포츠클럽
피구는 우리 학교의 자랑!

BSC 뉴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추진을 위한
시·도 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한평생 수영과 함께한 부산수영계의 산증인!

재미 삼아 헤엄치기를 즐겨하던 소년은 우연한 기회에 수영코치의 눈에 띄었고, 중·고등학교 내내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수영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선수로 활동했기에 행정업무도 선수의 입장에서 한 발 먼저 생각하며 아낌 없는 헌신을 이어온 이승철 원로는 1986년 열린 제6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수영부남 1위를 차지했을 당시, 수영을 시작한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며 부산수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수영연맹 고문
이승철 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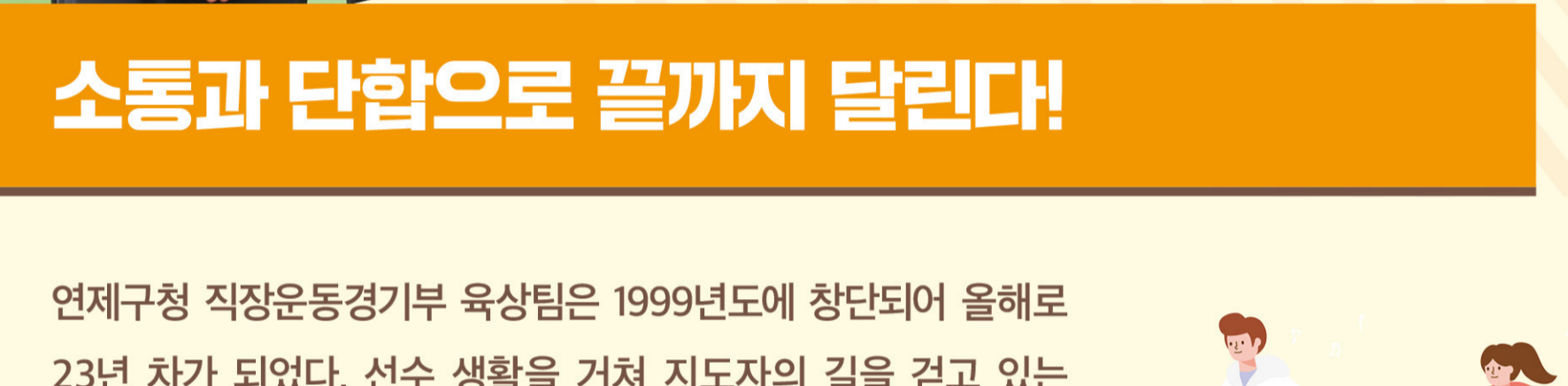


56년간 부산광역시수영연맹에서 일해온 이승철 원로는 오랜 시간 동안 늘 부산수영을 위해 힘써 왔음에도 겸양을 잃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수영연맹의 사무국장부터 총무이사, 전무이사과 상임 부회장, 감사를 거쳐 상임위원이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 일하는 내내 크게 힘든 점이 없었다는 이 원로의 말에서 부산수영에 대한 마음이 느껴진다.

“부산광역시수영연맹과 부산수영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활동해온 게 벌써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앞으로도 더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수영연맹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여러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선수들을 위해서 저도 힘이 닿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의 땀방울



연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통과 단합으로 끝까지 달린다!

연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1999년도에 창단되어 올해로 23년 차가 되었다. 선수 생활을 거쳐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장유현 감독의 지도 아래 10종경기 국가대표 최동희 선수, 장대 높이뛰기 박태원 선수, 세단뛰기 김주는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필드(Field) 종목이 강세인 팀이다.

“타 시도 육상팀이 보통 5명 이상인 것에 비해 인원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1:1로 코칭을 한다거나,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을 파악해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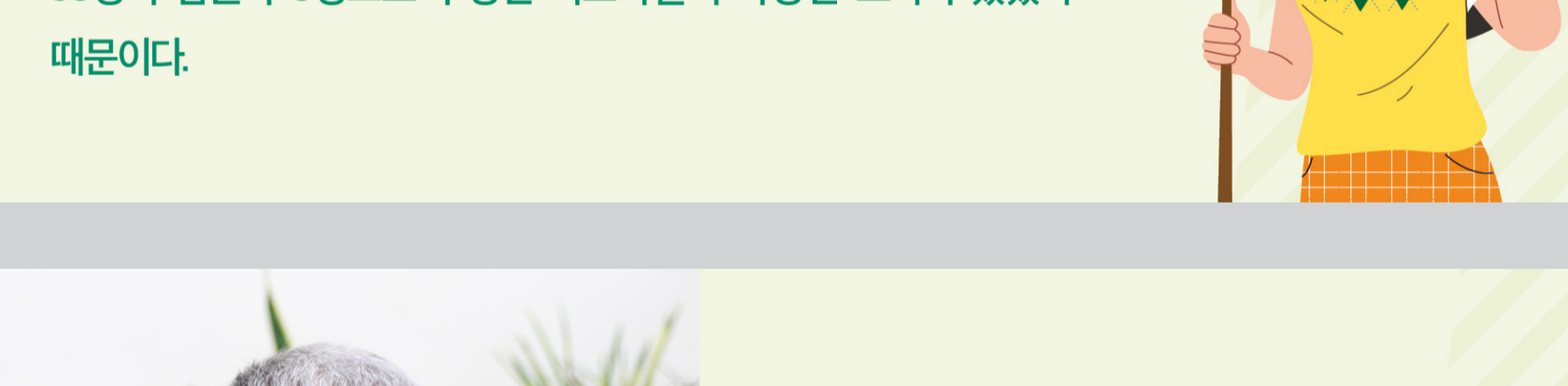
연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로 선택과 집중을 꼽았다. 육상의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선수들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훈련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록에 보탬이 된 것이다.

박태원 선수는 앞으로도 기록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김주는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어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현재 친선 선수촌에서 국가 대표로 합숙 훈련 중인 최동희 선수는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대표선수로도 출전할 예정이다.

연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소통과 단합을 원동력 삼아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다. 육상이라는 종목으로 부산을 대표하고,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갈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체육의 힘을 전하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진구체육회는 2016년도 통합 이후 현재 31개의 회원종목단체와 310개의 클럽 그리고 약 1만여 명이 가까운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지난해 민선 17로 당선된 김호상 회장을 주축으로 35명의 임원과 8명으로 구성된 지도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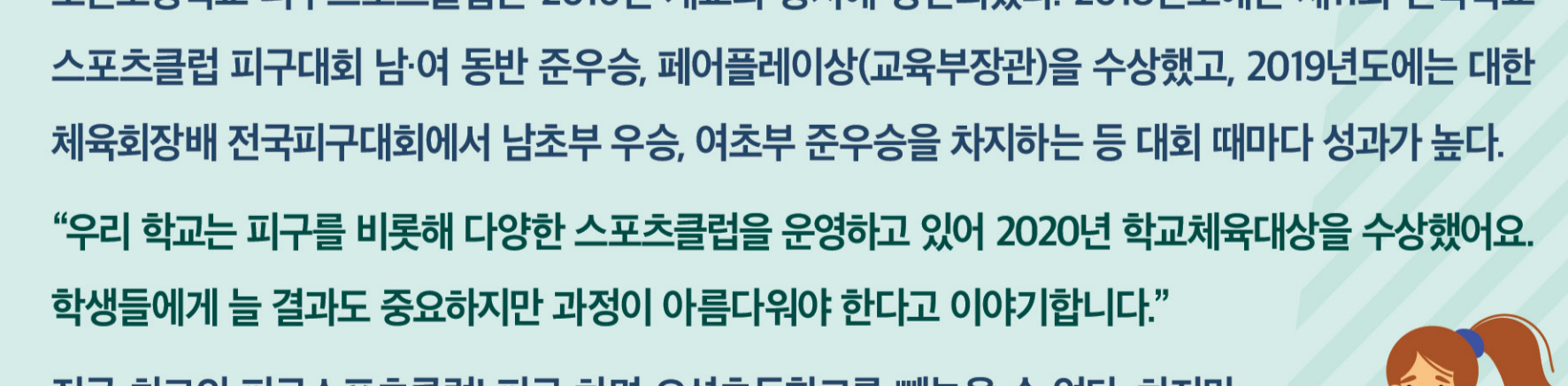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볼과 파크골프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있으며, 가족이 폭넓게 할 수 있는 운동과 고령화시대에 맞춘 이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갖가지 사업도 실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키드키파크, 학생교육문화회관, 성지곡수원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백양산, 황령산, 황지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면서 어르신 체조와 홈트레이닝, 유아울동, 배드민턴, 스텝박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매달 32씩 제작해 업로드하는 등 온라인 강의 영상도 틈틈이 제작 중이다.

앞으로도 부산진구체육회는 다음 세대와 건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설 것이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목의 다변화와 체육동호회의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구는 우리 학교의 자랑!



학교체육 탐구생활
오션초등학교
피구스포츠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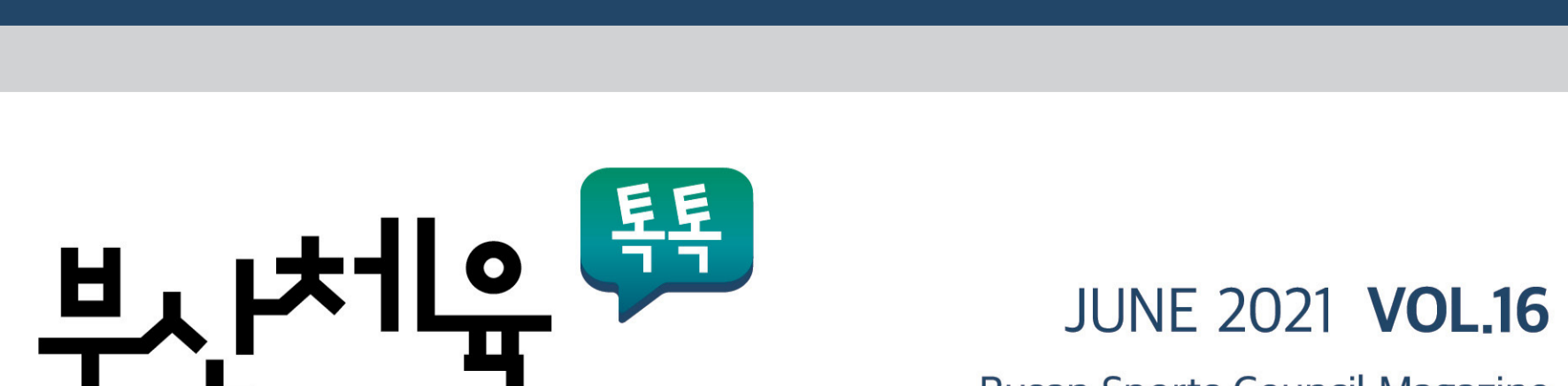
오션초등학교 피구스포츠클럽은 2016년 개교와 동시에 창단되었다. 2018년도에는 제11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피구대회 남·여 동남 준우승, 페어플레이상(교육부장관)을 수상했고, 2019년도에는 대한체육회장배 전국피구대회에서 남초부 우승, 여초부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회 때마다 성과가 높다.

“우리 학교는 피구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2020년 학교체육대상을 수상했어요. 학생들에게 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국 최고의 피구스포츠클럽! 피구 하면 오션초등학교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오션초등학교 피구스포츠클럽이 빛나는 것은 피구에 대한 하나된 열정, 번지 않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정만큼 결과도 아름다울 오션초등학교 피구스포츠클럽의 앞날이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추진을 위한 시·도 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BSC 뉴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수) 부산상공회의소 8층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민화 회장, 울산광역시체육회 이진웅 회장, 경상남도체육회 김오영 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울·경 시도 간 스포츠교류 및 부·울·경 메가경기 조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지역 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등 체육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대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정책관계회의 및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개최를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